

박상우 장관, 한동민 건설기계안전관리원 신임 원장에 임명장 수여

- 국내 대표 건설기계 안전 전문기관으로 빈틈없는 안전관리 당부 -

-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8일 오전 한동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신임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.
- 박 장관은 한동민 신임 원장에게 “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국내 건설산업의 안전과 효율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기관으로서, 건설기계의 안전관리와 검사 체계 강화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”하다고 강조했다.
- 특히, 건설기계 법정검사는 안전성을 확보하여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므로, “미수검 건설기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”을 강조했다.
- 특히, 검사대행기관으로서 건설기계 종사자가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“검사소 시설 개선, 검사 역량 제고 방안을 수립할 필요”가 있다고 덧붙였다.
- 또한,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의 제작 단계부터 사용·운행에 이르기까지 건설기계 전 생애 걸쳐 주요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, 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전문성 강화에 힘쓸 것”도 요청했다.
- 나아가 “세계적으로 건설기계의 첨단화·대형화되면서 기술발전이 빠르게 이뤄지는 만큼, 새로운 유형의 안전사고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검사기법을 고도화하는 등의 안전관리 체계 발전에 만전을 기할 것”을 당부했다.

2024. 11. 18.

국토교통부 대변인